

현대차그룹, 해외 우수인재 만난다 9월 'HMG 테크 토틀런트 포럼' 개최

현대차·기아·모셔널 등 9개사 참여
미래 신기술 분야 우수인재 교류
기술 성과·비전 전시 등 콘텐츠 풍성

현대자동차그룹이 글로벌 기업으로서의 역량 강화를 위해 해외 우수인재 확보에 적극 나선다.

현대차그룹은 오는 9월 17~18일(현지 시간)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핵심 경영층과 함께 미래 신기술 분야 우수인재를 초대하는 교류의 장 'HMG 테크 토틀런트 포럼(Hyundai Motor Group Tech Talent Forum)'을 처음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참여사는 현대차, 현대차 미국법인, 기아, 기아 미국법인, 현대차그룹 미국 기술연구소, 현대차그룹 메타플랫폼 아메리카, 보스턴다이나믹스, 모셔널, 포티투닷(42dot) 등 주요 9개 회사이다. 이번 포럼과 연계된 그룹 최초의 통합 채용 프로그램 'HMG 글로벌 테크 토틀런트 채용'도 실시한다.

실리콘밸리의 산 호세 맥에너리 컨

벤션 센터에서 열리는 HMG 테크 토틀런트 포럼에는 현대차 호세 무뇨스 대표이사(사장), 현대차·기아 박민우 AVP본부장(사장), 만프레드 하러 R&D 본부장(사장), 현대차그룹 김해인 인사실장(부사장) 등 핵심 경영층이 기조 연설 무대에 올라 우수 인재들을 직접 만난다.

또 포럼은 현대차그룹의 핵심 실무 기술 리더들과 소통할 수 있는 자리로 현대차그룹의 기술 성과와 비전을 확인할 수 있는 전시 등 풍부한 콘텐츠로 준비될 예정이다. 6월 30일까지 공식 홈페이지에서 참가 신청할 수 있다.

김해인 현대차그룹 인사실장(부사장)은 "현대차그룹은 글로벌 모빌리티 리더로 도약하는 과정에서 미래 기술을 이끌어 나갈 글로벌 기술 인재 확보에 집중하고 있다"며 "이번 포럼은 우수 인재를 발굴하고 기술적 협업을 촉진하는 의미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포럼과 연계해 현대차그룹 주요 9개 회사가 시행하는 'HMG 글로벌 테크 토틀

런트 채용'은 이날부터 5월 22일까지 동일한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입사 지원서를 접수한다.

채용 모집 분야는 ▲AI ▲로보틱스 ▲자율주행 ▲스마트제조 ▲SW/IT ▲배터리 ▲수소·에너지 등 7개이다. 채용은 ▲지원서 접수(4/20~5/22) ▲서류심사(~6월 중순) ▲면접(~7월 말) ▲최종면접(9월) 순으로 진행되며, 최종 면접 대상자는 오는 9월 17~18일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개최되는 HMG 테크 토틀런트 포럼에 초청돼 현장에서 최종 면접을 치르게 된다.

박민우 현대차·기아 AVP본부장(사장)은 이번 포럼 및 통합 채용과 관련해 "AI와 자율주행으로 대표되는 미래 모빌리티 경쟁은 단순한 기술 개발만으로 승패가 결정되지 않는다"라며 "기술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서로 얼마나 깊이 연결되어 있는지, 그리고 공유하는 비전이 얼마나 명확한지가 경쟁력을 좌우한다"라고 강조했다.

ysw@metroseoul.co.kr



metro



LG화학 '차이나플러스 2026' 전시부스 조감도.

/LG화학

K-석화기업, 로봇분야 등 고부가 소재 뽐내

차이나플러스 2026

LG화학 90여종 전략제품 전시
롯데케미칼 'Super EP' 첫 공개
SK케미칼 바이오 소재 전면예

국내 석유화학 기업들이 아시아 최대 플라스틱 전시회인 '차이나플러스 2026'에서 고부가 소재 경쟁에 나선다. 로봇·전장·반도체·배터리·의료·재활용 등 성장 산업용 전략 제품을 앞세워 현지 고객사와 접점을 넓히고 스페셜티와 친환경 소재 중심의 사업 포트폴리오 확대 전략도 제시할 계획이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LG화학, 롯데케미칼, SK케미칼은 오는 21일부터 24일까지 중국 상하이에서 열리는 '차이나플러스 2026'에 참가한다. 차이나플러스는 미국 NPE, 독일 K소와 함께 글로벌 3대 플라스틱·고무 전시회로 꼽히는 아시아 최대 행사다.

세 회사는 이번 전시에서 미래 산업용 고기능성 소재와 재활용 솔루션을 전면예 내세운다. 전장·배터리·전자·생활소재 시장을 겨냥하는 동시에 범용 제품 중심 사업 구조에서 벗어나 고부가 포트폴리오를 확대하겠다는 전략이다.

LG화학은 '산업의 전환을 이끌어온 소재'를 주제로 약 400㎡(121평) 규모 부스를 마련하고 로봇·전장·의료 분야를 중심으로 90여 종의 전략 제품을 전시한다. 로봇 분야에서는 메탈릭 ABS(고부가합성수지)와 초고강도 PVC(폴리염화비닐), 고굴절 소재를 선보인다. 배터리 안전성을 높이는 소재로는 열폭주 지연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SF

B'와 에어로젤 기반 열차단 소재 '넥솔라'를 공개한다. 전장 분야에서는 고풍택·고내열 ASA(고부가합성수지)와 고투명 PC(폴리카보네이트) 소재를, 의료 분야에서는 의료용 ABS와 PC 소재를 소개한다. 단일 PE(폴리에틸렌) 기반 초박막 포장 필름 소재 '유니커블'도 함께 선보일 예정이다.

롯데케미칼은 '지속적인 성장 추진력'을 주제로 첨단 산업, 모빌리티, 생활 소재, 리사이클 솔루션 등으로 전시관을 구성한다. 특히 차세대 고기능성 소재인 '슈퍼 엔지니어링 플라스틱(Super EP)'을 처음 공개한다. 반도체 공정용 정전기방전(ESD) 방지 소재와 반도체·디스플레이 현상액인 TMAH, 초소형 카메라 모듈과 스마트워치 바디에 적용된 Super EP 소재 등을 전시한다. 모빌리티 존에서는 외장 소재와 컬러 디자인 솔루션, 동박·양극박·분리막용 소재·전해액 유기용매 등 리튬이온 배터리 4대 핵심 소재를 선보인다. 난연 솔루션과 배터리 셀 운송·보관용 트레이 소재도 함께 소개할 계획이다.

SK케미칼은 순환재활용과 바이오 소재를 앞세운다.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실존하는 솔루션'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자사 소재가 적용된 상용화 완제품 110여 종을 전시한다.

업계 한 관계자는 "차이나플러스는 중국을 포함한 글로벌 고객사에 고부가 소재 경쟁력과 사업 방향을 동시에 보여줄 수 있는 자리"라며 "국내 석유화학업체들도 범용 제품을 넘어 스페셜티와 친환경 소재 중심으로 고객 기반을 넓히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삼성SDI, 벤츠 차세대 전기차 배터리 공급

독자 개발 안전성 솔루션 함께 반영
미래 모빌리티분야 전반 협력 확대

메르세데스-벤츠가 전기차 배터리 공급망 다변화에 나선 가운데 삼성SDI가 벤츠에 처음으로 전기차 배터리를 공급한다. 업계에서는 삼성SDI가 이번 수주를 계기로 프리미엄 완성차 시장에서의 입지를 넓히고 향후 전략적 협력 범위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삼성SDI는 20일 서울 강남구 신사동 안다즈 서울강남에서 메르세데스-벤츠와 차세대 전기차 배터리 공급을 위한 다년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약에 따라 삼성SDI는 메르세데스-벤츠의 차세대 전기차에 탑재될 고성능 배터리를 공급한다. 해당 제품에는 높은 에너지 밀도를 구현할 수 있는 하이니켈 NCM(니켈·코발트·망간)



오르그 부르저 메르세데스-벤츠 그룹 AG 이사 회 멤버 및 최고기술책임자(CTO·오른쪽), 최주선 삼성SDI 대표이사 사장이 20일 오전 안다즈 서울 강남에서 배터리 공급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고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삼성SDI

소재가 적용된다. 주행거리 확대와 장수명, 고출력 성능을 구현하는 동시에 삼성SDI가 독자 개발한 안전성 솔루션도 함께 반영됐다.

삼성SDI는 지난해부터 메르세데스-벤츠와 협력 논의에 공을 들여온 것으로

알려졌다. 최주선 삼성SDI 사장은 취임 이후 메르세데스-벤츠 경영진과 온·오프라인 소통을 이어가며 협력 가능성을 타진해왔고 이를 바탕으로 최근 양사가 구체적인 계약 조건을 조율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지난해 11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 삼성 영빈관 승지원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주선 사장, 올라 칼레니우스 메르세데스-벤츠 회장 등이 만찬 회동을 가진 점도 이번 계약 성사의 배경으로 거론된다. 당시 양측 경영진은 미래 모빌리티 분야 전반의 협력 방안을 폭넓게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계기로 전략적 파트너십이 한층 구체화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양사는 이번 계약을 계기로 차세대 배터리 선형 개발 등 미래 모빌리티 분야 전반으로 협력 관계를 넓혀나갈 방침이다.

/원관희 기자 wkh@

LG전자 "스탠바이미, 대화면으로 크게 즐기세요"

32형 '스탠바이미2 맥스' 출시
이동식 스크린 시장 리더십 공고히

LG전자가 시원하게 커진 32형 화면으로 선명해진 4K 화질을 즐길 수 있는, 'LG 스탠바이미2 맥스'를 앞세워 이동식 스크린 시장의 리더십을 강화한다.

LG전자는 히트 상품인 스탠바이미 시리즈의 최신작인 LG 스탠바이미2 맥스를 국내에 본격 출시한다고 20일 밝혔다.

LG 스탠바이미2 맥스는 기존 모델의 27형보다 약 40% 커진 32형 터치 디스플레이를 탑재했으며, 4K UHD

(3,840X2,160) 해상도로 QHD인 LG 스탠바이미2보다도 한층 향상된 화질을 구현했다. 11.1.2 채널의 입체 음향으로 별도 스피커 없이도 풍부한 사운드를 즐길 수 있다.

신제품에는 전자보다 더욱 향상된 3세대 알파8 AI 프로세서가 탑재됐다. AI가 영상과 사운드를 분석·보정해 콘텐츠에 최적화된 화면과 서라운드 사운드를 선사한다. 알파8 AI 슈퍼 업스케일링 4K 기능은 해상도가 낮은 영상도 4K 고화질로 감상할 수 있도록 해준다.

LG 스탠바이미만의 차별적인 장점

인 이동성과 편리한 사용성도 더욱 강화됐다.

진정한 무선 활용을 위해 필수적인 내장 배터리 용량은 144Wh로 늘어, 전원 연결 없이 최대 4시간 30분까지 사용할 수 있다. 화면부는 버튼 하나로 손쉽게 스탠드와 분리해 태블릿처럼 자유롭게 활용할 수도 있다. 전용 액세서리인 원클릭 스탠드를 활용해 가로·세로 등 보고 싶은 방향으로 세우고, 스트랩 액세서리로 편리하게 휴대하거나 벽에 걸어 액자 또는 시계로도 연출 가능하다.

/차현정 기자 hyeon@

삼성전자, 'EHS 히트펌프 보일러' 선보

공기열·전기 활용... 탄소저감 효과

삼성전자는 정부의 난방 전기화 보급 정책에 맞춰 공기열과 전기를 활용해 난방과 온수를 공급하는 공기열 기반의 'EHS 히트펌프 보일러'를 선보인다고 20일 밝혔다.

EHS 히트펌프는 자연 상태의 공기열을 활용해 투입되는 전기 에너지보다 4배 이상 많은 열을 만들어 실내 난방과 온수에 활용할 수 있는 난방 제품이다. 에너지 효율이 100% 미만인 기존 화석 연료 기반 보일러와 비교해 전기 소비와 탄소 배출을 크게 줄일 수 있다.

또 이 제품은 고효율 냉매 압축 기술로 발생시킨 열 에너지를 활용해 영하 15도에서도 최대 70도의 고온수를 공급할 수 있다.

실외기 내부에는 전기 히터와 동파 방지 밸브가 탑재돼, 열교환기 동파와

배관 결빙을 방지했으며 제품 하단에도 배수를 돕는 히터가 추가로 탑재됐다.

이를 통해 영하 25도의 혹한 환경에서도 출수온도가 급격히 감소하는 것을 방지하고 동파로 인한 기기 고장을 예방할 수 있다.

신제품은 열교환 면적을 극대화한 대용량 열교환기가 탑재돼 에너지 효율이 높다.

특히 이번 제품에는 가정용 에어컨 등 냉난방기 제품에서 범용적으로 사용되는 'R410A' 냉매보다 지구온난화지수(GWP)가 68% 낮은 R32 냉매를 적용했다.

신제품의 제어기에는 7형 터치 디스플레이가 탑재됐다. 디스플레이를 통해 난방, 급탕 등 히트펌프 시스템 전체를 한눈에 모니터링하고 손쉽게 제어할 수 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